

# 홍보하라 실속 챙기라...5G 준비 분주

### 내년 상용화 앞두고

### KT·SKT 대대적 캠페인

### LGU 현 기술 강화 '실속파'

### 야구·골프앱 등 콘텐츠 주력

차세대 이동통신 5G를 향한 통신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LG유플러스의 행보가 눈에 띈다. SK텔레콤과 KT가 전면전도 불사하지 않는 양상이라면 LG유플러스는 실속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별도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지 않을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가 최근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피겨여왕' 김연아와 평창동계올림픽 스키레톤 금메달

리스트 윤성빈을 앞세워 5G 캠페인에 돌입했고, KT도 비슷한 시기 5G를 소개하는 신규 캠페인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달리 프로야구와 골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앞세워 무제한 요금제 마케팅에 더욱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된 19일에도 3사 중 유일하게 미디어 행사를 열고, 골프 앱을 홍보했다.

LG유플러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3사 중 유일하게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 전시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홍보 공간을 마련해 내외신을 상대로 5G 알리기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KT와 공동 전선을 펴고 있지만 온도 차가 있다.

LG유플러스와 KT 모두 경쟁이 치열한 3.5GHz(기가헤르츠) 대역을 최대한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KT는 대역폭의 차이로 품질 격차가 발생하

는 것을 막는 동시에 SK텔레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반면 LG유플러스는 낙찰가 상승을 더욱 우려한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LG유플러스의 최근 행보에는 '재무통' 권영수 부회장의 실리주의가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LG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출신인 권 부회장은 2015년 말 취임 이후 수익성이 높은 LTE와 홈미디어 서비스에 집중하며 성장을 이끌어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조원, 8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런 권 부회장에게 5G는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다. 아직 기술 표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렇다 할 킬러 서비스도 아직 없다.

권 부회장은 올해 2월 세계 모바일 전시회 'MWC 2018' 간담회에서 "다른 통신사 경영진을 만나도 5G 하면서 돈 벌기 쉽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다"며 "눈에 띄는 5G 서비스가 보이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지난달 야구 앱 체험 행사에서도 "개인적으로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싫어한다"며 "5G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힘을 쏟는 프로야구와 골프 앱은 5G 상용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안에 무제한 요금제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이고, 5G 상용화에 맞춰 이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를 활용해 5G 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외부로 보이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려는 전략"이라며 "프로야구와 골프 앱처럼 고객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광주충장로우체국 2층에서 '작은대학'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 “충장로우체국에 ‘작은대학’ 생겼어요”

### 스마트폰 활용 등 수강료 무료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최근 광주충장로우체국 2층에서 '우체국 작은대학(이하 작은대학)'개소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서는 작은대학의 첫 번째 과정인 한지공예의 음선희(47) 강사, 수강생, 전남우정청 및 우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체국 작은대학' 현판 제막식,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작은대학은 우체국의 여유공간을 교육과 문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인적

자원과 연결하여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역협력 거버넌스 사업이다. 광주충장로우체국 작은대학은 한지공예, 천연제품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법 등 3개 과정으로, 오는 6월까지 주 1회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정진용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작은대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교육·문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체국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재기자 e16621@



동심으로 과학세상 펼쳐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최근 열린 '2018 국립광주과학관 봄 과학축제 컬러풀 사이언스(Colorful Science)'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컬러풀 사이언스는 오는 5월20일까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VR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첨단 대동여지도', '수학아 놀자!', '빛이 그린 그림' 등으로 꾸며진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 “천왕성 구름 썩은 달걀 냄새? 황화수소 가스 때문”

### 英 연구팀, 망원경 관측 확인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은 황화수소(H<sub>2</sub>S)로 이뤄진 구름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24일 BBC방송에 따르면 천왕성 대기 중 황화수소 가스가 존재하는지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돼왔지만, 옥스퍼드대학 패트릭 어윈 박사 연구팀이 하와이 마우나 키아 정상의 제미니 노스 망원경

관측으로 이를 처음 확인해 '네이처 어스트로노미(Nature Astronomy)' 최신호에 실었다.

H<sub>2</sub>S는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며, 천왕성 구름 상층부에서 관측됐다.

과학자들은 천왕성 구름 마루의 주성분이 H<sub>2</sub>S나 암모니아(NH<sub>3</sub>)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지상 망원경 관측과 보이저2호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해왔다.

연구팀은 제미니 노스 망원경의 '근적외선 인터그럴 필드 분광계'(NIFS)를 이용해 천왕성의 적외선을 구성 성분의 파장으로 쪼개 분석했다. H<sub>2</sub>S가 태양의 적외선을 흡수하면서 만든 흡수선으로 알려진 스펙트럼 밴드는 천왕성 대기 성분의 지문 역할을 했다.

어윈 박사는 "황화수소 흡수선 자료 확충과 제미니 망원경의 스펙트럼 분석 덕분에 범인을 잡을 지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천왕성 구름 마루의 H<sub>2</sub>S는 상층부 구름이 암모니아 얼음으로 구성된 목성이나 토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연구진은 이런 대기성분의 차이가 행성의 생성과 역사를 규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윈 박사는 "혹시라도 천왕성의 구름을 뚫고 좌측하는 불행한 인간이 있다면 매우 불쾌하고 악취 나는 환경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물론 수소와 헬륨, 메탄으로 구성된 영하 200도 대기에 노출돼 냄새를 맡기도 전에 질식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100·101·106 민원상담 요금 안내도 된다

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사라진다.

해당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는데 이 요금을 폐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

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정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 액티브X 교체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액티브X와 실행파일 등의 과도한 설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웹 사이트 전환 및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14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웹 사이트 전환 지원 부문은 민간 500대 웹 사이트 운영사와 소규모 호스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부문은 국내 기업이라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4일 마감된다. 사업설명회는 5월 8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편안한 착용감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탄성GOOD! 흡발습GOOD!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일본 도레이社 LYCRA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